

# 두 아이의 엄마에서 관세사가 되기까지

제31회 관세사 시험 합격자  
관세사 홍유영님

## 합격수기

### I.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31기로 합격한 홍유영입니다.

전업주부이며 두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제 합격수기가 저와 같이 아이를 키우시는 분 또는 전업주부로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나도 할 수 있다.' 라는 작은 격려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세사 공부를 시작하게 된 시기는 2009년 10월부터입니다. 이때 10여 년간 근무하던 회사가 미국 금융위기로 팀 전체가 없어지면서 퇴사하게 되었고, 일하던 직장이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을 보고 앞으로의 인생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도 많은 워킹맘들이 아이를 두고 나와 일하면서 느끼는 죄책감 등 복잡한 다난한 일들을 겪으며 일하였으나 모든 것이 일순 사라지게 되면서 자격증이 있다면 상황이 다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미치게 되었고 무역과 관계가 있다고 여긴 관세사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이하 제 경우처럼 육아와 병행하는 엄마들의 공부시간 확보와 1차와 2차 시험에서의 과목별 공부방법, 시행착오와 저에게 효과 있었던 공부방법 등에 대하여 적어 보겠습니다.

## II. 수험기간과 공부시간 확보

### 1. 2010년 1차 시험

저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9년 10월부터 1차 시험을 준비하였습니다만 회계 과락으로 2010년 1차에서 불합격 하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각 과목별로 인강을 1회씩 듣고 모의고사만 풀어보고 시험을 봤는데 지금 생각하면 둘째를 임신한 상태에서 공부하느라 준비가 부실하여 불합격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2010년 1차 시험을 4월 4일에 보고 나서 시험일 다음 날 둘째를 출산하면서 아이가 18개월이 될 때까지는 책을 펴보지도 못하고 2011년 10월을 맞이했습니다.

#### ▶ 엄마들을 위한 TIP :

만약 출산계획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아이가 어린이집에 갈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는 기다리시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길 조심스럽게 제안합니다. 저 경우에는 24개월 이전의 아이를 집에서 데리고 있으면서 공부시간을 확보 하기가 어려웠고 공부계획이 흐트러지면서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 2. 2012년 1차 시험

둘째 아이가 18개월이 되면서 친정부모님께서 공부를 다시 해보라는 격려와 남편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1차 공부를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2011년 10월부터 주중 2일인 화,목요일 10시 ~ 3시까지와 주말인 토,일요일 오전 8시부터 6시까지 공부시간을 확보하였습니다.

집에서는 눈앞에 산재한 집안일과 인터넷, 전화연락 등의 유혹으로 1차공부에 집중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도서관으로 가서 공부했고 집에 오면 아이들도 울고 저도 울면서 1차 공부를 했다고 하는 게 과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2009년과는 달리 1회독후 다시 보는 과목들이라 조금씩 이해되는 부분이 늘어나는 즐거움도 느끼던 시기였습니다.

▶ 엄마들을 위한 TIP :

수험 공부를 시작하시기 전에 본인의 의지를 다지는 것과 거의 비슷한 강도로 주위의 도움도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1차와 달리 2차 준비가 시작되면 낮뿐만이 아니고 아이들 하교이후 저녁에도 공부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남편이 협조해준다면 다행이고 여의치 않다면 친정, 시댁의 도움 그도 기대기 어렵다면 시간제 돌보미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업 수험생들의 경우 기본적으로 12시간 이상 도서관에서 공부하지만, 육아까지 병행하시는 경우 9시간이라도 확보하려면 주위도움이 필요한 게 현실입니다.

### 3. 2012년 1차 합격후 ~2013년 2차 시험

#### 3.1 - 2012년 1차합격후 ~2012년 말

12년도 1차 시험을 합격한 기쁨에 마음이 해이해지고 친정 부모님과 남편,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으로 공부를 거의 놓고 2012년 5월 중순까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가 이후에 가장 뼈아프게 후회되고 3년차가 되게 하는 기간 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1차에 합격했을 뿐인데 마음은 이미 최종 합격한 듯 느긋하게 보냈습니다.

실감은 들을 수 없는 상황이라 모든1차 2차 강의를 인강으로 듣는데도 불구하고 다음연도를 위한 새로운 이론 강의의 개강을 기다린다는 핑계로 4월 1차 시험이후 5월 중순까지 한 달 정도를 허비한 것입니다.

2012년 후반기에는 둘째 아이가 어린이집에 들어가면서 주중 10시 ~4시, 주말 8시 ~6시 정도까지 2차 과목 인강 이론을 듣고 과목별로 서브나 목차집을 만들거나 1~2회독이라도 하려고 노력한 시기 입니다.

▶ 모든 수험생들에게 드리는 TIP:

1차 시험 점수에 따른 합격 불합격의 여부를 떠나 1차시험 이후 1주일 이상 쉬지 않으시길 권합니다. 내세법 이경신 선생님께서도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만일 올해 1차에 붙고 내년 2차에 최종 합격해도 내년 기수 관세사가 되실 것이고 올해 1차에 떨어졌어도 내년에 1차와 2차를 동차로 붙는 경우 또한 동일하게

내년 기수 관세사가 되실 것입니다. 1차 시험은 2차 시험장의 입장권이라고 생각하시고 1차 결과에 안주하지 마시고 2차까지 멀리 보시길 바랍니다.

### 3.2- 2013년 전반기부터 2차 시험 까지

2013년 1월에 모의고사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답안지에 글을 써보게 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제대로 정리나 암기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문제에 대한 답안서술은 물론 기본기도 갖추지 않고 일요일마다 모의고사를 치렀습니다.

모의고사 전까지 막연하게 모의고사 범위대로 공부하고 가서 쓰면 되겠지 하였지만 1차와 전혀 다른 논술 답안 방식과의 엄청난 괴리감에 5월까지의 중하위권에서 맴돌며 지쳐갔습니다.

6월에는 그나마 답안 서술에 익숙해지고 과목내용의 뼈대는 잡으면서 20위권까지는 올라갔지만 2차 시험에서는 뒷심을 발휘하지 못하고 총점 2점 차이로 불합격하게 되었습니다.

## 4. 2013년 2차 불합격발표후 3년차 동자 수험 기간

2013년 최종 합격자 발표에서 각 과목 점수를 확인하고 불합격임에도 불구하고 과락 없이 총점 2점이 모자랐다는 사실에 오히려 다시 한 번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다시 한 번 친정부모님과 남편 그리고 아이들에게 기회를 달라고 부탁하고 3년차 동자수험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전업주부가 아닌 전업 수험생으로 생활할 수 있게 친정부모님과 남편에게 전적인 도움을 받았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여 그로 인한 압박감도 상당했습니다.

### 4.1 -2013 년 10월 부터 2014년 1차 시험

#### (1) 1차 시험 대비

1차 시험에서의 당락을 좌우하는 과목이 외계였으므로 1차 시험 볼 때까지 재무외계와 원가 외계 기본서를 보았고 1차 시험까지 기본서는 4~5 회독,

문제 풀이책은 3회독 하였습니다.

외계 이외의 과목인 관세법, 내세법과 무역영어는 2차 모의고사를 보는 동안인 1~2월까지는 따로 공부시간을 내기 어려웠고 3월 9일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공부하였습니다.

다만 쉽다고 생각한 내세법이 난이도가 상승한 것인지 한 달 동안 다시 공부해서 시험을 보기에 버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내세법은 이경신 선생님의 OX 수업과 모의고사수업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1달만을 남기고 1차로 전환한 건 심리적인 압박이 상당하여 1차 시험날 오후 답안 발표까지 마음을 많이 즐였습니다. 각 개인차이니 동차생의 경우 자신에 맞게 1차전환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1차를 통과하지 못해 열심이 준비한 2차를 볼 수 없는 경우가 생기면 정말 억울 할 것 같습니다.

#### (2) 2차시험 모의고사

1월부터 보기 시작했고 1~2월에는 30등이내, 5월~6월에는 대략 10등 내외로 성적이 나왔습니다. 이 시기에 나름 도움 받은 공부방법에 대하여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4.2 -2014년 2차 시험

1차 시험결과를 시험 당일 오후 답안발표로 합격을 확인하고 그날 저녁에 식구들과 교외로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가고 그 다음 날인 일요일부터 다시 도서관으로 가서 본격적으로 2차준비에 몰입했습니다. 2012년의 실수는 다시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모의고사도 4월 12일 1차 시험 다음주부터 등록해서 2차 시험 전까지 매주 봤습니다.

모의고사를 4월에는 보지 않고 3월 한 달 동안 뒤쳐진 2차 과목을 보충할까 하는 생각도 했으나 실전 연습이라 생각하고 다녔습니다.

모의고사를 보다보면 점심 식사후 집에 가시는 분들을 보면서 흔들리기도 하고 생각보다 점수도 나오지 않고 심리적, 체력적으로 지쳐서 '왜 여기서 이려고 있나...' 라는 기분에 많이 우울했습니다만 실제 시험날을 생각하면서 연습이라 생각하고 빠지지 않고 모의고사를 치렀고 결과적으로 실제 시험에서 마인드

컨트롤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 엄마들을 위한 TIP :

유예때 불합격한 것을 큰아이가 알고는 자신이 떨어진 것 처럼 낙담하는 것을 보고 3동차 때는 아이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주고 싶어서 더 마음을 다잡고 했습니다. 모든 수험생이 가족의 도움과 지지를 받으면서 수험생활을 하겠지만, 엄마들은 아이에게 노력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큰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 III. 1차 ,2차 각 과목 공부방법

#### 1. 1차 시험대비 공부 방법

3년차 동사이다 보니 세세한 과목별 공부방법보다는 3년차 때의 경험을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관세법 , 내세법 , 무역영어 3과목은 FTA 학원의 문제 풀이 수업용 교재를 따로 사서 3월 한 달동안 집중적으로 풀었습니다.

회계는 유지원 선생님의 재무회계 , 원가 회계 기본이론책과 문제 풀이 책을 10월부터 꾸준히 보았습니다.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3월 1차 시험대비 모의고사풀이인데 저는 모의고사를 인강으로 들었고 4과목 모의고사를 전날 미리 프린트해서 가지고 있다가 다음날 오전, 실제 시험시간과 동일하게 풀고 점심 후 강평을 2과목씩 나누어 2일에 걸쳐 들었습니다.

하루에 다 듣지 않은 건 과목이 실강 요일에 맞추어 업로드되는 시간차도 있기도 하였고 복습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오전에 실제 시험시간과 같은 시간 간격으로 4과목 모의고사를 풀것은 실강에서의 모의고사 풀이와 같은 효과를 얻고 싶었고 실제 1차 시험에서의 마인드 컨트롤을 미리 하기 위함이였습니다.

또한 OX 문제 풀이 특강은 내세법과 회계를 실강으로 들었는데 수험기간동안 실강을 들었던건 OX 문제 풀이수업이 유일합니다. 1차시험전 단기간에 개념정리 하고 내용 이해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유지원선생님의 '말문제풀이' 덕분에 회계 이론 문제를 거의 다 맞을수 있었던것 같습니다.

## 2. 2차 시험대비 각 과목별 공부 방법

아래 괄호의 점수는 2년차 유예 -> 3년차 동차 점수 입니다.

2년차 유예이후 3년차 동차에서 제 나름의 효과가 있었던 방법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2.1 관세법 (48.5 점 -> 70점)

#### (1) 목차노트

목차노트는 필요합니다. 다만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목차 노트를 만드시길 권합니다.

저는 목차를 카드가 아닌 시험 답안지에 정리해서 법령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면 9장 통관에서 '신고 -> 물품의 검사 -> 신고의 처리' 의 흐름을 한 페이지에 모두 볼 수 있도록 적어서 보았습니다.

목차 노트 작성은 어느 정도 기본서 2~3회 외독 후 작성하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2년차 유예때 1차 시험후 5~6월에 목차 노트를 작성하기 위해 기본서의 목차만 따라쓰면서 시간을 낭비한 경험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때 작성한 목차노트는 2차 시험 볼 때까지 활용도 못했고 오히려 그다음 해 3월부터 작성한 연습답안지 목차 노트를 이후 모의고사와 실제 시험에 요긴하게 활용하였습니다.

## (2) 암기식

관세법에서 암기식을 활용한 부분은 1차 관세법 시간에 배운 암기식을 이용했고  
감면세 부분의 대상은 앞 자를 따는 등으로 암기식을 만들어 외웠습니다.

예를 들어 지식재산권 보호대상은 " 특허상품 으로 디자인한 식물은 저작  
농산물이다 "

분할납부 대상은 " 산정에 있는 교사는 연중내내직공노릇한다' 등  
나름대로 연상하면서 만든 암기식을 목차노트 구석구석에 써서 활용했습니다.

## (3) 허가, 신고, 승인의 구분

운동하기 쉬운 허가, 신고, 승인은 각 단어마다 색을 정해서 초록 보라 파란색의  
두꺼운 펜으로 써서 눈에 익혔습니다.

그리고 1차 시험에서 객관식 문제를 풀다보니 단어 구분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3년차 동차때 1차 준비로 시간을 뺏긴다고 생각하시기 보다는  
관세법이나 무역영어로 2차 관세법과 무역실무의 협정 부분의 디테일을 더  
자세히 짚어 보신다고 생각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 (4) 환특법

환특법은 내용이 적다고 생각하여 뒤로 미루기 쉽습니다만 관세법을 하다 보면  
계속 밀려서 시험 전까지 제대로 공부할 수 없을 위험이 큰 과목입니다. 대외/  
외환도 마찬가지로이지만 본 과목공부를 시작하시기 전에 무조건 30분 정도 보고  
시작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실제 시험에서 환특법 문제가 1~2문제씩  
관세법과 따로 또는 엮어서 나오기 때문에 환특법은 꼭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5) 기본서의 숙지

기본서의 외독수와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마지막까지 놓지 말아야 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본서에 있는 각 제도와 법령의 의의에 대해서는 실제 시험에서  
서술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관세법 교재는 3동차에서도 2년차 유예때의  
제갈현근 선생님의 교재를 바꾸지 않고 개정부분만 고쳐서 계속 봤습니다.

교재를 중간에 바꾸는 경우 이미지와 하여 암기하는데 무리가 있을것 같아서 같은 교재를 보았고 3동차 시험에서는 답 서술시에 교재에 있던 글이 이미지로 떠올라 서술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 2.2 HS (53점 ->54.5점)

HS 는 올해 시험과목 중 난이도가 가장 높다고 느낀 과목이였고 해설서내용을 제대로 쓰지 못해서 합격자 발표 전까지 과락만 면하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유예 때보다 점수 상승 폭이 가장 작았습니다.

다만 시험장에서는 나도 모르면 다른 수험생들도 모를 거라고 나름 위안하면서 평정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답안을 서술했습니다.

### (1) 호의 용어와 주규정

호의 용어는 29기 합격자분이 올려주신 앞글자 암기식으로 외우고 주규정도 목자집처럼 주번호와 키워드로 정리해서 올려주신 자료로 외웠고 30기 합격자분이 주신 자료로 더 추가하여 각 부별 암기식이나 15부 체계정리를 더 정리해서 외웠습니다.

다만 호의 용어는 유예때 오히려 더 열심히 외우고 3동차에서 신경을 덜 써서 85류 호의 용어 쓰는 문제에서 놓친 것이 나와 발표 때까지 정말 많이 불안했습니다.

### (2) 제외규정 암기식

각 부/류별 제외규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예로 들면 아래처럼 따로 암기식을 만들어서 외웠습니다.

- 11부 주1 제외규정은 "석면면린터 머리카락으로 만든 브러시는 감광성의 1mm 5mm 스트립을 침투시켜 모피로 연마하여 카본 유리 가 되었다 64,65,67 94~97 은 덤이다."
- 18부 주1 제외규정은 "고가방 들고 벨트 차고 공도에서 유리거울 보는 범 (호랑이), 84/85, 94/95 " 등입니다.

만약 잘 안 외어지는 주 규정이 있다면 나름의 암기식이라도 만들어서 외워 놓으시길 바랍니다. 실제 시험에서 주 규정이 기억 안나는 경우 암기식이라도 있다면 조금이라도 쓰실 수 있을 겁니다.

## 2.3 관세평가 (46점→57.5점)

### (1) 시간 배분

유예때 관세평가 시험에서 1번 문제에서 시간 조절을 실패하여 5번과 6번 문제 서술을 두세 줄밖에 쓰지 못했었습니다.

이 경험으로 관세 평가 과목은 문제별 시간 분배에 대하여 더 신경을 많이 쓴 과목입니다.

1번 문제가 조건을 주고 과세 표준을 구하는 문제로 기본적인 법령을 적기보다는 각 조건에 따른 가감여부에 대한 판단과 적용 법령 협정내용을 최대한 빨리 적었습니다. 관세 평가에서는 다른 과목과 달리 서와 결은 적지 않았습니다.

### (2) 모의고사

올해 시험의 문제지를 받는순간 문제 지문이 1번부터 6번까지 숨 실 틈이 없구나 하는 당황스러움을 느꼈는데 .

김병수 선생님의 모의고사에서 매년 겪었던 당황스러움과 비슷하였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관세평가는 문항별 근거 법령 협정내용을 쓰고 각 평가 사유를 연계하여 서술 하는 방식으로 썼습니다.

### (3) 적용법령 목차집 활용

모의고사 때마다 각 문제의 모범 답안에 쓰여있는 적용 법령, 협정을 목차집 처럼 따로 정리하여 연상하며 공부했습니다.

EX ) Q. 계약서상 고정환율을 정하는 경우의 통화환산

- 관세법 18조 과세 환율
- 수입물품과세가격 결정고시 2조 통화
- 협정 권고의견 20.1 계약서에 고정환율정하는 경우의 통화환산

(4) 고시내용의 숙지

평가과목에서는 법령규칙과 협정뿐만 아니라 고시 내용도 충분히 보시길 바랍니다.

예로 가산요소중 수수료에 대하여 법 30조 ,령 17조2 ,규칙 3조2, 고시 5조 등 고시까지 연결 정리해서 공부했습니다.

2.4 무역실무 와 대외/ 외환 (47.5 -> 59)

(1) 대외/ 외환

관세법에 대한 환특법과 마찬가지로 방대한 무역실무 과목의 양에 밀리지 않게 하기 위해 대외/ 외환과목을 각 30분씩 공부하고 나서 실무를 공부했습니다. 이 방법이 특히 외환거래법을 포기하지 않고 시험장에서 적을 수 있게 한 요인 이라고 생각합니다.

(2) 교재의 단권화

유예때 무역실무의 양이 너무 많아서 유예 시험 전까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CISG ,Incoterms, UCP 협약 내용도 암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어려웠고 3년차 동차에서도 1월까지 공부 방향을 잡지 못해서 힘들었던 과목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기본서에 다른 강사님들의 책을 보면서 보충하거나 페이지를 찢어서 합본하는 식으로 단권화를 해가면서 대비했습니다.

1월말에 박병호선생님의 요약본이 나와 그 책을 보면서 정리가 각 협약간의 상관관계를 정리했고 각 협약내용이 도식으로 정리되어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요약본이라고는 하나 내용이 상당히 많고 정리도 잘 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3) 협약의 암기

무역실무 과목은 제 암기식을 만들지 않고 4월~6월동안 박병호선생님의 요약집으로 공부하면서 각 협약과의 상호 관계를 이해했고 요약본의 암기식으로 공부했습니다. 또한 1차시험 준비로 본 무역영어에서의 영문 협약내용으로 협약을 좀 더 디테일하게 기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수험생들이 박병호 선생님의 본 교재의 수준이 높다하여 욕심이 났으나 이미 올해 3월이 지난 후라 본 교재를 볼 엄두가 나지 않아 요약본을 선택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단권화교재를 보충하여 공부했습니다.

무역실무과목은 넓고 깊게 준비하고 5~6월에는 더 이상 범위를 넓히지 않고 정리 자료로 공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실제 작년에는 기본서 한 권 보는 것이 급급하여 소유권관련 문제를 제대로 대비를 하지 못하여 1번 문제를 5쪽밖에 쓰지 못 했습니다. 자의적으로 출제 범위를 한정하여 공부 내용을 줄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 IV . 기타 사항

### 1. 모의고사의 활용

- (1) 1번 문제는 40분이 남는 시점까지만 쓰거나 최대한 37분까지만 쓰는 연습을 하고 대신 2번 ~6번까지 충분히 시간 배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2) 유예때는 책을 가지고 가서 모의 고사때 보는 경우가 많았으나 올해 FTA 학원에서는 교재를 보지 않도록 했고, 저 자신도 교재 보는 습관이 들면 실제 시험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시험시간에는 교재를 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5월 이후에는 목차집 정도만 간단히 들고 가서 훑어보고 모의고사를 지렸습니다.
- (3) 점삭 시험지를 받으면 모범답안에 점수를 쓰고 시험 때 쓰지 못한 부분을 형광펜 등으로 표시해서 복습시에 신경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4) 모의고사때 쓰지 못한 내용은 모범답안을 보면서 정리할 때 더 확실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시험을 보지 않고 모범답안만 보는 경우와 기억에 남는 정도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 2. 기출문제

주교재와 정리자료를 보다가 지겨울 때, 10개년도 정도 기출문제만 모아놓은 것을 뽑아서 내가 시험 볼 때 이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서술할지 생각해봤던 것도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공부 방향이 잘 잡힌 경우에는 답안을 이렇게 쉼표처럼 쓰면 되겠다고 연상이 되는데 평소에 전혀 고민하지 않은 문제라면 굉장이 막막해서 다시 확인 정리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공부하다 지겨울 때 퀴즈처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3. 순공부시간

3등차때는 순공부시간을 타이머로 켜면서 공부했는데 보통 8시간에서 많이 나오면 9시간 30분이었습니다.

둘째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10시 이후 도서관에 도착하여 밤 9~10시사이에 집중력이 떨어지면 집에 돌아왔습니다.

## 4. 핸드폰 사용

수험생활 중 가장 잘한 것이 핸드폰을 집에 놓고 다닌 것입니다. 유예때는 혹시 모를 급한 연락이나 아이들이 걱정되어 핸드폰을 들고 다녔는데 그 때문에 시시때때로 연락을 받아 급하게 집으로 돌아가거나 인터넷을 보는 등 시간 관리가 잘되지 않았기에 3년차 때는 아예 급한 연락을 진정 부모님이나 남편에게 가도록 해 놓고 가지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 5. 집안 대소사의 참석

양가 대소사 특히 제사, 어버이날, 어린이날, 양가부모님 생신과 지인 결혼식 등의

행사에 양해를 구하고 모의고사 기간 동안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맘에 걸렸지만, 하루 한 시간도 아까운 처지라 마음을 다해 양해를 구하면 이해해주셨고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6. 아이 학교 또는 어린이집

아이가 있는 경우 수험목적에 가장 적합 한때는 아무래도 아이가 어린이집 종일 반을 다니는 때인 것 같습니다. 초등 저학년의 경우 방과후나 돌봄교실에 등록하지 않으면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1시 전후라 수험공부시간을 확보하기 정말 어렵고 저학년 학교행사가 많아 참석하기 시작하면 굳은 마음으로 시작한 공부가 흐지부지 되기 쉽습니다.

저 또한 큰 아이 초등학교 입학후, 아이 학교생활과 제 수험생활을 둘 다 잘하겠다는 욕심을 부려서 2차시험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 V. 맺으며

31기 90명의 합격생 각자에게 자기만의 방법이 있었을 것입니다. 수험생분들도 부디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 꼭 합격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1기 관세사 홍유영 드림